

단순 치정? 32명이나 사살할 정도인가

■ 범행동기 등 풀어야 할 의문점들

두 차례 총격 2~3시간의 시간차 일부 글 폭력성·정신이상 연관성

미국은 물론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에 대한 미국 수사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범인이 사망함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씨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과 비슷한 종류의 '월터 P22' 권총.

미 수사당국은 면담한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벌써부터 일부 대목은 영구미제의 미스터리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조승희의 진짜 범행동기는 무엇인가=미 수사당국은 조씨의 1차 범행동기를 여자친구 문제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조씨가 1주일 전 독일어시간에 여자친구와 다툰 뒤 독일어 교수로부터 꾸지람을 들었고, 16일 여자친구 기숙사 방에서도 이성문제로 다투었다는 것.

◇조씨와 에밀리의 관계는=수사 초기 언론보도내용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사망한 1학년생인 에밀리 제인 힐스처가 조씨의 여자친구이거나 옛 여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에밀리가 조씨의 여자친구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에밀리의 절친한 친구들이 “에밀리와 조승희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치정사건의 경우 당사자만 죽음을 이르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으로 미뤄볼 때 조씨가 30명이나 추가 사살했다는 것은 단순한 치정문제라고 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씨는 이 대학 4학년생이고, 에밀리는 1학년. 두 사람은 전공도 달랐다. 뿐만 아니라 소극적, 폐쇄적인 성격의 조씨가 백인 여자친구를 사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

일각에선 기숙사 방을 2~3명이 공동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조씨가 에밀리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오인, 사살한 뒤 자신의 진짜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노리스홀로 가서 무차별 난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씨의 여자친구도 이번 사건에서 희생됐다면 기숙사에서 숨진 에밀리보다 노리스홀에서 숨진 누군가일 수 있다는 것.

◇첫번째 총격 사건과 두번째 총격 사건의 연관성=제일 처음 기숙사에서 두 명이 숨지는 총격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전 7시15분. 이후 두번째 사건은 10시15분경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최대 3시간의 시간차가 발생하고 있다.

당초 조씨가 1차 범행 후 자신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너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다”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보고되고, 경찰이 ‘치정’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힐스처가 범행 동기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로 인해 당초 이번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거나 범인이 2명 이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것.

미국측 수사당당자를 면담했던 워싱턴 주재 한국총영사관의 최승현 영사는 “수사당국은 두 사건이 모두 동일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그 뿐만 아니라 조씨의 일부 글에서 드러나고 있는 폭력성 또는 정신이상문제가 이번 사건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 지, 조씨가 졸업을 한달여 남겨놓고 왜 범행을 저질렀는 지, 조씨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 지 등도 속시원히 규명돼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씨가 기숙사에서 여자친구와 사감을 사살한 뒤 2~3시간 후 외부로 입고 권총 2자루로 무장하고 노리스홀에서 30명을 사살하고 자신의 목숨도 끊었다는 것.

두 사건이 모두 조씨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왜 조씨가 2~3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범행을 저질렀는 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씨 부모집 출입통제 버지니아공대 총기참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승희씨의 부모가 살고 있는 센터빌 집 주위에서 경찰이 기자들이 물려들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씨 부모집 출입통제

버지니아공대 총기참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승희씨의 부모가 살고 있는 센터빌 집 주위에서 경찰이 기자들이 물려들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

“사건 직후 ‘조승희’ 떠 올랐다”

동료학생들 “끔찍한 희곡 과제물 제출...괴기·엽기”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의 범인으로 발표된 조승희씨의 동료 학생들은 이번 사건 직후 조씨가 총과 전기톱이 등장하는 끔찍한 내용의 희곡을 수업 과제물로 제출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를 범인으로 떠올렸었다고 말했다.

조씨와 함께 희곡 작문 과목을 수강한 이안 맥팔레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해 가을학기 조가 ‘리처드 맥비프’, ‘미스터 브라운스톤’이란 두 편의 희곡을 쓰고 학생들끼리 돌려 보고 평가를 해주었다고 밝히고 “그의 희곡은 마치 악몽과도 같이 끔찍한 폭력과 무기가 등장하는 등 매우 뼈뼌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조씨의 희곡 내용이 너무 끔찍한 나머지 동료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논평을 해주었으며, 교수조차 조씨에게 최종 논평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 맥팔레인은 사건 직후 범인이 아시아계로 알려지자 동료들도 조씨를 범인으로 떠올렸다고 말하고 심지어 자신

은 조가 권총을 들고 감의실로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씨가 평소 동료 학생들의 접근에도 불구, 일체 어울리지 않았으며 매일 시간에 맞춰 수업에 나타나 과제물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가 쓴 희곡 ‘리처드 맥비프’는 아들과 계부간의 갈등을 그렸으며, ‘미스터 브라운스톤’은 카지노에서 우연히 만난 학생들과 교사간의 헤프닝을 다루고 있다.

버지니아공대에서 박사후과정을 밟고 있는 정모씨는 조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버지니아공대 인근 골프 및 야구연습장에서 조씨와 조우했었다고 말했다. “조씨가 시종 정경린 얼굴이었고, 뭔가 화가난 표정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고교 친구들은 그가 고교시절부터 다른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는 조용하고 고립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전했다. 조씨가 다닌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센터빌의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동창들에 따르면 그는 백인 학생들은 물론 한인 학생들과도 거의 어울리지 않은채 혼자서 조용히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같은 동네에 살아 통학버스를 함께 타고 다녔던 고교 친구 서모씨는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아주 조용히 지냈다”며 “한인은 물론 백인 학생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아 ‘왕따’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조씨와 같은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던 또 다른 친구 박모씨는 “그는 언제나 버스 맨 앞자리에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며 “간혹 친구들이 다가와 말을 건네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래리 힝커 버지니아텍 대변인은 “그는 외톨이었다”며 그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관련 정보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 뉴욕항우회장 지낸 강성호씨 “애도의 마음으로 조심한 인 차별·공격은 없어”



영광 출신으로 뉴욕항우회장을 지낸 강성호(59) 뉴욕시민경찰위원회 회장은 한국 교포 학생의 미국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라 모든 교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하루를 보냈다”면서 “미국 내 전 한인들이 희생자 유족과 미국인들에게 애도와 사과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18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교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사건 직후 한인들은 미국인들의 비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생활 속에서 모든 언행을 주의하고 서로 서로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의 4개 교포 신문과 1개 라디오 방송, 7개의 주간지 등 한인 언론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미국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설혹 그들이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참여자는 논조의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사건 직후 후시나 교포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을 거 우려도 했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가 조속히 애도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미국 내에서 한인 차별이나 공격 등과 같은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모든 교포들이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을 실시간으로 지켜 보는 등 예민해 있다”면서 “지금 현재는 애도의 자세로 조심스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점차 사태가 진정되면 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책 등을 고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모든 교포들이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을 실시간으로 지켜 보는 등 예민해 있다”면서 “지금 현재는 애도의 자세로 조심스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점차 사태가 진정되면 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책 등을 고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조씨 부모 자살설 사실무근

미국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한인 학생 조승희씨의 부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설이 나와 주목된다.

라디오 코리아는 17일 “조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소식을 전해 듣고 흥기를 이용해 뿔뿔이 끊어 숨졌다는 소문이 버지니아 한인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인단체 고위관계자는 “현재 미 수사당국이 조씨 부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앞서 미 수사당국 관계자는 이들 부모의 자살 기도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전남고등학교

제37차 전남고 가족 한마음 축제

2007년도 제37회 총동창회 체육대회는 그 동안 해왔던 체육대회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로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교에서 해왔던 체육대회를 모교 근처인 상무시민공원 대운동장에서 “전남고 가족 한마음 축제”로 어울릴 수 있는 잔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동문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움으로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최 : 전남고등학교 총동창회
- 일시 : 4월 29일(일) 09:00 ~ 17:00
- 주관 : 9회, 19회
- 경품 : 지펠냉장고, 트롬세탁기 등 (천만원상당경품)
- 장소 : 상무지구 시민공원

상무지역 전남고등학교 교정